

신앙과 학문 II 연구 보고서

기독교세계관과 대인돌봄행위에 관련연구: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전열어

목 차

I.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 1.2. 연구목적

II.문헌고찰

- 2.1. 기독교세계관
- 2.2. 대학생활적응
- 2.3. 대학생활스트레스
- 2.4. 대인돌봄행위

III.연구방법

- 3.1. 연구설계
- 3.2. 연구도구
- 3.3. 연구대상
- 3.4. 자료수집방법
- 3.5. 자료분석
- 3.6. 기대효과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관(world-view)이라는 말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perspectives)을 지칭하는 말이다[1]. 이 세상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있다고 보는가에 관한 문제가 세계관의 문제이다. 사람들이 실재를 바라보는 방식을 그들의 세계관이라고 칭한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세계관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2]. 세계관은 문화의 핵심이며, 기본적인 가정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실체이다. 세계관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리도록 작용한다. 올바른 세계관은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함과 아울러 삶의 전반적인 목적과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3]. 세계관은 단순한 이론이나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방향이나 지침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세계관은 개인적 삶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삶을 이끌어 가며, 개인적 삶 속에서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으로 작용하여 생활의 방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Christian world-view)이란 그리스도인이 가진 세계관을 뜻한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해한 내용, 그 둘을 다 포함한다[1].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본다. 이 창조, 타락, 구속의 구조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기독교 세계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3]. 기독교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배우게하고 기독교적 교양을 심어주며, 기독교적 교양과 성숙한 인격을 배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4]. 대학생 시기는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상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단계인 청년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직업 선택 및 준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성인이 되는 과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5].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자율성 가지며, 원하는 전공 위주의 공부를 하고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을 사귀는 등 대학생 신분을 만끽한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회적 규범에 적응을 해야 하고, 중·고등학교와는 다른 수준의 심화된 공부를 하는 등 해야 하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업도 달성해야 한다[6].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신입생들이 상급생에 비해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수준이 낮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교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과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

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의 학교나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과 유대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8]. 대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학업성취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정서적으로도 다양한 대학생활 환경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가 중요한 다면적인 현상이다[8,9].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면 불안, 불만족, 실망, 적대감, 후회 등의 부정적 사고가 발달하게 된다[10]. 대학생활에 부적응적인 학생들은 학업 능력이 낮아지고 대인관계를 적응적으로 맺지 못하며, 이는 성인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11].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최근 문헌을 살펴보면, 대학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변인 가운데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하였다[12].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 문제와 진로 문제, 대인관계 어려움, 정서적 적응 등에서도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호소하였다[13].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동안 학업, 대인관계, 경제적 문제, 가치관 등 여러 일상적인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대학에서 간호대학생의 기독교적 세계관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와 대학생활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에서 돌봄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염려와 관심을 나타내는 간호사와 대상자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한 양육적 대인관계로 치료과정을 강화하는 삶의 경험이다[14]. 환자 돌봄행위는 Watson의 돌봄이론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김수지[15]가 경청, 안위, 공유, 동참, 수용, 용서, 희망, 칭찬, 알아봄, 동행 10개의 사람돌봄이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초기의 대인돌봄행위 측정도구는 10개 개념을 문항 분석과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숙 등[16] 연구에서 적극적경청(경청, 안위제공, 공유, 동참), 수용과용서(수용, 용서), 희망과칭찬, 알아봄, 동행 5개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간호사와 간호학생, 환자의 입장으로부터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돌봄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간호사는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구체적 대인돌봄행위를 제공함으로써, 대인돌봄행위를 제공받은 대상자는 돌봄요구가 충족되어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고 안녕상태를 유지하며 건강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17]. 간호대학생과 교수의 대인돌봄행위로 관심, 지지, 정보제공, 인정을 받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18], 간호학생이 받은 돌봄 경험이 간호사로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러한 영향이 간호 수행에 영향을 주어, 졸업 후 간호사로 근무할 때 임상현장에서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19]. 간호사가 의사소통기술로서 대인돌봄행위를 사용할 때 환자의 불안, 정서적 위축, 긴장감, 우울감의 증상을 감소시킴을 보고 하였다[20]. 또한 사람돌봄이론을 기반으로 한 대인돌봄행위와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행복감, 직무만족,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대인돌봄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

는 분노표현, 분노반추, 정서지능, 직무 스트레스,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들이 있음이 보고되었다[21].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돌봄행위 정도가 어느정도이며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에서 간호대학생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따른 대인돌봄 행위를 수행정도를 확인하고 대인돌봄행위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마련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세계관,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에서 대인돌봄행위를 수행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기독교세계관이 대학생활의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을 높일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학생활적응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또한 대인돌봄행위에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기독교세계관을 증진하고 대인돌봄행위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정 마련에 기초적 자료가 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독교세계관과 대인돌봄행위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적응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기독교세계관, 대학생활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대인돌봄행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돌봄행위와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기독교세계관, 대학생활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대인돌봄행위의 관계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기독교세계관과 대인돌봄행위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적응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Ⅱ . 문헌고찰

2.1. 기독교 세계관

역사적으로 ‘세계관’이라는 말은 1870년에 칸트(I. Kant)가 판단력 비판 이란 책에서 ‘세계관’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 후 키에르케고르는 세계관이란 말에 대해 처음으로 “궁극적 신념의 집합”이란 기술적 의미를 부여했으며, ‘세계관’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철학계에 도입한 딜타이는 “생활의 불가사의나 수수께끼를 푸는 실재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했었다. 찰스 크래프트는 이 세계관을 일반적인 의미로서 이해하여 “한 사회 속에 서로 맞물려 연결된 일련의 신념체계”라 하였다. 세계관은 확실히 전 이론적이고 문화적이며 종교적인 것이다. 또한 검증이나 논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검증이나 논증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이미 자신의 문화 속에서 형성된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인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은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기독교적이라는 말에 의해 한정된다. 즉 기독교가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도 계시된 말씀 즉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시작 된다. 월터스(A. Wolters), 월시(B. Walsh) 와 미들톤(R. Middleton) 등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내용을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세계기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구조와 방향이라는 기독교 철학의 틀로 그 내용을 보강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인간의 범죄로 타락하였으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만물이 구속될 것이므로, 세계의 일부를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이원론적 사고는 전적으로 비성경적이라 주장한다. 성경을 영혼구원의 책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의 구원은 만물의 창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한 만물의 회복을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만물회복의 전조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월터스(A. Wolter)는 동일한 내용을 좀더 철학적으로 개념화하여 ‘구조와 방향’으로 설명한다. 즉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각 영역에 부여하신 규범이나 본질은 ‘구조’로 설명하고 ‘타락’으로 인한 왜곡을 ‘방향’으로 설명한다. 구조-방향의 개념은 창조-타락-구속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타락과 구속을 마음의 방향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특히 이원론적 이해를 불식시키는데 매우 좋은 처방이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신다. 그러나 최종적인 구원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날에 완성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념이 기독교 세계관의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적인 패러다임 :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창조) → 인간이 세상의 죄를 지었고(타락) →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구속) →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하나님의 나라)을 창조하시는 날(완성)

간호은 인간과 자연, 인간환경, 자연환경, 간호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증진의 틀에서 네 가지 개념을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이 전개 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간호 : 인간, 자연 → 환경(지역사회 등) → 간호(서비스) → 건강증진의 네 개념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만물(인간과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파괴, 오염, 훼손 등의 타락의 죄를 지었고 이를 복원하고, 보존하는 간호사의 역할로 주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경외심과 위대하심을 알 수 있게 하는 완성의 의미로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피조물은 처음에는 완성된 세상이었으나 인간의 사고와 이기심으로 인한 건강의 파괴와 훼손 등으로 인해 그 가치의 상실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파괴와 훼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며, 하나님을 경외감과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전개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역할은 간호사로서 대상자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으로 대상자에게 간호서비스와 섬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2. 대학생활적응

대학에서의 생활은 이전까지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이며, 학업적으로나 학업외적으로나 이전과 전혀 다른 환경에 잘 적응해야 하는 과업을 부여 받는다. Arkoff는 적응을 환경의 요구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환경을 개인에게 맞게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서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적응은 개인이 변화하는 주변 환경과 그 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학생활에서의 적응은 대학생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반응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성취(Gerdes & Mallinckrodt, 1994), 대인관계와 정신건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그래서 대학생활 적응은 개인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대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학업성취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정서적으로도 다양한 대학생활 환경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가 중요한 다면적인 현상이다. Baker와 Siryk(1984)은 대학생활적응을 환경에 대한 적응과 개인 내적인 적응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대학에서 잘 적응을 하는 것은 대

학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청년기에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신체적 욕구와, 성격적 욕구가 집중적으로 표출되어서 정서적으로 강렬해지고,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더불어 생리적, 사회적, 자아 발달의 욕구가 함께 나타나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이 많아지고, 사회 경험의 미숙으로 인한 충분한 적응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여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되기 때문에 청년 후기 및 성년 초기인 대학생의 적응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Baker와 Siryk(1984)은 대학생활 적응을 개인의 내적 적응과 개인 주변 환경과의 적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를 학업, 사회, 정서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학업적 적응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 과제를 개인이 얼마나 잘 성취하고 적응하는가를 의미하는데, 이는 인지 능력 이상의 개념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학습 동기, 과제를 대하는 태도, 목표 의식 및 시간 관리, 자신의 학업적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고, 학교의 학업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학업적 적응의 정도를 파악한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교수의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서 학업적 적응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자기 효능감 수준이 학업적 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사회적 적응은 대학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지를 평가하는 요인이다. 여기에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나 부모와 같은 안정적인 지지 체계 형성 여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 교수 및 교우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같은 대인관계 능력, 사회적으로 재배치된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그리고 기숙사 생활과 같이 제공된 사회적 환경에 대해 만족한 정도를 포함한다. 선행 연구에서 정서지능과 대학생활 적응의 사회적 적응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지적 정서조절을 하는 사람이 대학생활 적응의 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세 번째, 개인-정서적 적응은 개인의 인성 형성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표, 가치관, 인성, 관계 등 자기 탐색 과정을 통한 적응을 의미하며,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상호관계성, 삶의 방향, 자기가치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반응과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포함되며, 이는 자기 탐색을 통해 자기 존재의 본질을 발견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개인-정서적 적응수준이 높다고 나타났고, 부모와의 의존적인 관계를 벗어나 자율성을 획득하면 개인-정서적 적응 수준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에 대한 애착은 대학에서의 전반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며, 자신이 속한 대학에 대한 애착의 정도와 만족도, 학업적 목표에 몰입하는 정도 등 대학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태도를 나타낸다. 또한 학위를 취득하겠다는 굳은 결심 및 특정 기관에 대한

강한 애착도 포함된다. 선행연구를 보면, 동아리에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이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대학의 물리적, 환경적인 지원이 대학에 대한 애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사람이며, 친구를 사귀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결국 대학 생활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고려하면, 다양한 차원에서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함께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학업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 혹은 인지적, 정서적 측면 등의 단일요인을 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적응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환경적, 상황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환경적(스트레스), 개인 내적(기독교세계관) 요인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2.3. 대학생활스트레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우리는 늘 긴장을 느끼며, 긴장의 정도가 적절한 수준을 넘어설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느낀다. 스트레스는 누구든지 겪게 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개인의 자원이나 역량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자극에 대해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심리적 과정에서 겪게 된다. 즉, 스트레스란 개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긴장상태를 일컫는다. Humphery(1982)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스트레스를 압박, 긴장, 좌절 등으로 정의한다. 대학생 시기는 후기 청소년기로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정체감 확립과 성인기로 넘어가기 위한 여러 과제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다. 발달적 과업뿐만 아니라 생활방식의 변화 또한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Coffman과 Gilligan(2002)은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잠재적인 스트레스원으로 보았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타율에 의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해왔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대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원인에 대한 여러 조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 스트레스에 대학생 46%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원인에 대해서는 35.5%가 경제문제, 23.9%가 취업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에는 20~24세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높다고 알려진 13~19세(50.5%)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주로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75.24%), 목표상실

과 가치관 혼란(43.94%), 자율적인 생활에 대한 부적응(30.2%)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성적 및 진로문제, 외로움이나 고독 등 정서문제, 경제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들로 다양하다. 대학들도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생들의 정서를 돌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보도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대체로 성취해야 할 과업들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예를 들어, 학업이나 성적에 대한 부담, 시험이나 보고서 제출, 졸업 후의 진로문제, 경제적 어려움, 친구나 선후배와의 관계, 이성 문제, 가족과의 관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생긴다. Abouserie(1994)의 연구에서도 학업에의 기대와 대인관계가 대학생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을 지적하였다. 또 다른 스트레스원으로 늘어난 흡연이나 음주, 이성관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로부터의 물리적 독립 등을 확인한 연구가 있고, 1, 2학년 학생들이 3, 4학년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스트레스와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적응 간에 부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이 겪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연구를 통해 대학생활 적응의 구조와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를 확인해보면, 여러 ‘학생의 특성 및 핵심 자기평가(trait and core self-evaluations)’ 요인 중 ‘스트레스(stress)’가 전반적 대학생활 적응과 가장 강력한 관련이($k=15, N=2,563, \rho=-0.42$)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되면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고, 주어진 과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스트레스와 혼란이 가중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로 인해 자신감의 감소, 성적저하, 학교적응에의 어려움 등으로 상담실을 찾거나 휴학이나 자퇴를 결심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으로 발현되는데, 두통, 위통과 위경련, 혈압 상승, 피로감, 심박수 증가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 울음, 공격성, 건망증, 과시, 강박적 행동 등과 같은 행동적 증상, 외로움, 우울, 분노, 불안, 좌절감, 무력감 등과 같은 정서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학업, 정서, 대인관계, 취업 등의 문제로 인한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는 복잡한 심리상태를 유발하며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이전 시기에 비해 많은 외부자극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시기인 만큼 대학생활에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외부요인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대학에서 적응수준은 대학생활의 다양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주로 결정이 되므로,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2.4. 대인돌봄행위

돌봄은 보편적 인간현상으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편적인 인간 존재방식이다. 이러한 돌봄은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어느 상황에서나 사람들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시범되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돌봄행위가 간호사에 의해 급성 병원 환경 즉, 환자의 질병에 더해져서 기능 상실, 신체적 붕괴,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 통재력 상실, 상황을 바꿀 수 없는 무능력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때 간호행위가 되므로 돌봄은 간호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환자 돌봄행위는 Watson의 돌봄이론을 배경으로 간호사와 간호학생, 환자의 입장에서부터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돌봄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환자 돌봄행위는 Watson의 돌봄이론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김수지(2017)가 경청, 안위, 공유, 동참, 수용, 용서, 희망, 칭찬, 알아봄, 동행 10개의 사람돌봄이론을 개발하였다. 10가지 사람돌봄이론은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의 알아봐줌(noticing), 상대방의 삶에 필요한 어떤 행위를 함께하는 행위의 동참함(participating), 상대방의 느낌, 접촉, 생각, 경험, 지식 등 소중한 것을 나누는 선한 행위의 공유함(sharing), 온 마음과 몸으로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여 귀 기울이는 행위의 적극적인 경청(active listening), 상대방이 외롭게 가는 길을 함께 가주는 행위의 동행함(companioning), 상대방의 좋은/잘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주는 행위의 칭찬함(complimenting), 상대방의 편이 되어 공감을 통해 슬픔이나 아픔을 이해해주고 편안하게 위로해주는 행위의 안위함(comforting),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절대자에게 맞추도록 도와주는 행위의 희망을 불러 넣음(hoping),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표현하며, 용서해 줄 것을 청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관용을 요청하는 행위의 용서함(forgiving), 비판 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드리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줄을 의미하는 수용함(accepting) 총 10개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초기의 대인돌봄행위 측정도구를 10개 개념을 문항 분석과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숙 등(2021) 연구에서 적극적경청(경청, 안위제공, 공유, 동참), 수용과용서(수용,용서), 희망과 칭찬, 알아봄, 동행 5개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병원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돌봄행위를 평가하기 위해 Caring Behaviors Inventory(CBI-42)를 5개 요인의 42문항(Wolf, 1986) 등 다양한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간호학생이 동료들로부터 받는 돌봄행위 측정 도구도 개발되어 간호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간호에서 돌봄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염려와 관심을 나타내는 간호사와 대상자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한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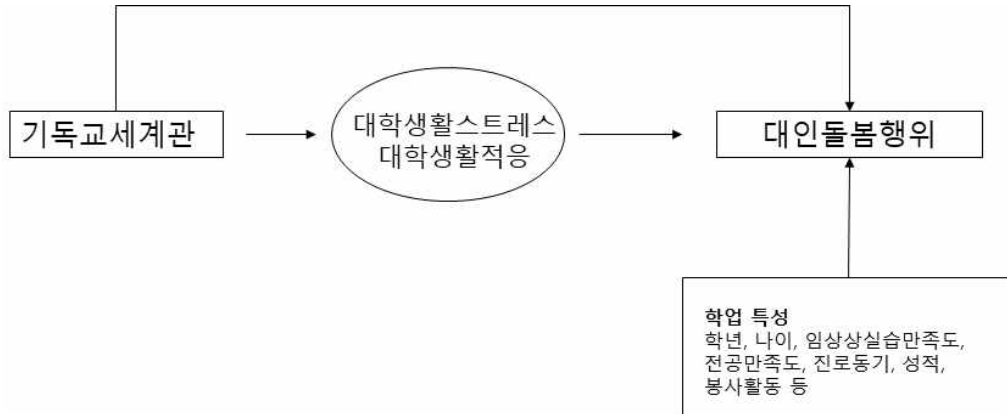
육적 대인관계로 치료과정을 강화하는 삶의 경험이다(Watson, 2008).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이슈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간호사는 질병과 함께 상황과 느낌, 행위의 정신적 의미도 분석하여 간호중재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인 돌봄은 다양하며 미세한 행위와 행동의 결과로 간호사와 대상자 사이의 직, 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실행된다. 돌봄 행위는 인간 상호작용에 돌봄이 존재할 때 모든 상황에서 특정행위와 행동을 촉진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돌봄행위는 측정가능한 행위와 행동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어서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교육과 훈련 및 간호중재 적용을 위해 연구되어지고 있다.

Yoon(2005)는 한국에서 개발된 김수지의 사람돌봄 이론에서 제시하는 10개 개념의 5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대인돌봄행위를 측정하였고, 간호사가 의사소통기술로서 대인돌봄행위를 사용할 때 환자의 불안, 정서적 위축, 긴장감, 우울감의 증상을 감소시키지만 과대망상이나 환각행동의 감소에는 영향이 적으며 정신과근무유무에 따른 수행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사람돌봄이론을 기반으로 한 대인돌봄행위와 긍정적 상관 변수는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행복감, 직무만족,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지지가 있었고, 대인돌봄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분노표현, 분노반추, 정서지능, 직무 스트레스,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보고되었다. 한편 대인돌봄행위를 중재에 활용하여 정신재활프로그램,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인간호 중재 프로그램, 한부모 가정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음악활동 프로그램,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대인돌봄 원예활동 프로그램, 간호대학생을 위한 에니어그램기반 사람돌봄 프로그램 등 환자 외에 다양한 대상자와 영역에 적용하여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돌봄행위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며,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과 임상실습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에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에서 간호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과 대인돌봄행위 수행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설계는 [그림 1]과 같으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기독교세계관, 대학생활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대인돌봄행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Figure 1] Research Design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개 도시의 간호학과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자로 하였다. 대상자수는 회귀분석 시 효과크기 .5 유의수준(α)=.05 검정력($1-\beta$)=.95을 고려하여 G*Power 3.19 program을 통해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수는 220명이었다. 이에 탈락률 20%을 고려하여 264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3.3. 연구 도구

3.3.1. 기독교세계관

본 연구에서 기독교세계관 측정도구는 정희영(2012)이 개발한 기독교세계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의 내용 구성은 창조의 시작과 의미, 인간의 본질, 인간 역사의 의미, 인간의 사망, 도덕적 기초, 그리고 삶에서 신앙의표현 등 6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문항은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독교세계관 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희영(2012)의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 α 는 .95로 보고되었다.

3.3.2. 대학생활스트레스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전경구, 김교헌, 이준석(2000)이 개발한 대학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대인관계 영역과 당면과제 영역의 두 가지로 구분되고, 대인관계 영역에는 친구와의 관계 문제, 이성과의 관계 문제, 가족과의 관계 문제, 교수와의 관계 문제의 하위 요인이 포함되고, 당면과제 영역에는 학업 문제, 경제 문제, 가치관 문제, 장래 문제가 하위요인으로 포함된다. 총 50 문항으로 Likert식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거의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의 범위는 50점에서 20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친구와의 관계 문제(“친구가 나를 무시했다.”), 이성과의 관계 문제(“이성 친구와의 사이가 매우 악화되었다.”), 가족과의 관계 문제(“부모와 의견충돌이 있어서 싸웠다.”), 교수와의 관계 문제(“교수의 불성실한 강의로 학습의욕이 저하되었다.”) 등이 있다. 당면과제 영역에서는 학업 문제(“공부해야 할 과제의 분량이 너무 많았다.”), 경제 문제(“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대학생활이 위축되었다.”), 가치관 문제(“이상과 현실의 격차 때문에 갈등을 경험했다.”), 장래 문제(“사회적 불안정(예: 정치, 경제 등) 때문에 직장을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경구, 김교헌, 이준석(2000)의 연구에서 척도 개발 당시 하위척도의 Cronbach α 의 범위는 .75 ~ .88이었고, 이지영(2007)의 연구에서는 .72 ~ .86이었으며 전체 Cronbach α 는 .94로 보고되었다.

3.3.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1984)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도검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이운정(1999)이 25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ACQ는 하위요인을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및 대학에 대한 애착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운정(1999)은 개인-정서적 적응을 정서적 적응과 신체적 적응으로 나눠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총 25문항이고, Likert식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영역의 가능한 최소점수는 5점이고 최대점수는 25점이며, 전체 적응은 5개 하위영역 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이다.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전체 적응과 각 영역의 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학문적 적응(“나는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못하다.”), 사회적 적응(“나는 대학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서적 적응(“나는 최근에 머리가 자주 아프다.”), 신체적 적응(“나는 최근 들

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대학에 대한 애착(“나는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이윤정 (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5$ 로 보고되었다.

3.3.4. 대인돌봄행위

대인돌봄행위 척도는 윤선희[33]의 대인돌봄행위 도구를 이 숙, 최애숙, 임소연, 전열어가 타당도를 검증한 설문지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2문항이며, 적극적경청 10문항, 수용와용서8문항, 희망과 칭찬 7문항, 알아봄 5문항, 동행 2문항으로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아주 많다’ 5점에서 ‘매우 적다’ 1점까지이며, 개발당시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97$ 이었다.

3.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5월 0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간호학과 학과장의 허가를 받은 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URL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 무기명으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문지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체크 후에 자가 보고식 설문지 작성이 진행되도록 하여 자료의 익명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자료수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할 예정이다.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과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을 포함하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을예정이다.

3.5. 자료 분석 방법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기독교세계관, 대학생활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대인돌봄행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돌봄행위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 Scheffe로 post-hoc검정을 실시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기독교세계관, 대학생활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대인돌봄행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대상자의 기독교세계관과 대인돌봄행위와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의 매개효과는 Baron &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른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 test로 확인하였다.

3.6. 기대효과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기독교세계관과 대학생활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대인돌봄행위 관계를 확인하여 기독교세계관과 대인돌봄행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교육 과정을 통해 기독교세계관과 대인돌봄행위돌봄 수행 능력을 증가시켜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기독교세계관과 대인돌봄행위를 향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세계관,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에서 대인돌봄행위를 수행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여 학생들이 임상실습능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을 높일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기독교세계관이 대학생활의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그리고 대학생활적응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승구,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출판부, 2003 p16
- [2] “세계관”, [동아 새국어사전], 1994.
- [3] 김정숙(2006)대학생들의 세계관을 통한캠퍼스 선교 전략, (부경대, 충북대, 경기대,중앙대학교 중심으로), Master's Thesis, 총신대학교
- [4] 허련숙, 기독교대학의 채플만족도에 대한 연구, 2017,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천안
- [5] 김영숙, 조한익 (2015).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도 및 주관적 안녕감의 종단적 인과관계와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교육심리연구, 29(4), 845-871.
- [6] Lautz, J., Hawkins, D., & Perez, A. B. (2005). The High School Visit:Providing College Counseling and Building Crucial K-16 Links among Students, Counselors and Admission Officers. Journal of College Admission, 188, 6-15.
- [7] 김경옥, 조윤희 (2011). 대학신입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4),197-218.
- [8] Baker, R. W., & Siryk, B.(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9] 이지원, 이기학 (2017). 대학생의 강점인식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1), 205-228.
- [10] 송동수 (2010). 체육대학 학생의 사회성숙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최효진, 이은주 (2012). 간호 대학 신입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본간호학회지, 19(2), 261-268.
- [12] 유경희, 김종경 (2016). 적응프로그램 제언을 위한 대학신입생 학교적응 관련 문헌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580-591.
- [13] 양민아 (2012). 내현적자기애와 진로미결정관계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
- [14] Watson, J.(2008). Nursing:The philosophy and science of caring (Revised ed.). Boulder, CO: University Press of Colorado.
- [15] 김수지(2017). 사람돌봄. 수문사:서울.
- [16] Lee, S, Choi, A, S., Yim, S, Y., & Chun, Y, E. (2022). Validity of the Korean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 Scale(ICBS) for Clinical Nurs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3(4), 89-101

doi:<https://doi.org/10.15207/JKCS.2022.13.04.089>

- [17] Joinson, C. (1992). Coping with compassion fatigue, *Nursing*, 22(4), 116-121
- [18] Lee, H. K., Jung, K. N., & Chi, S. A. (2001). A Study on Experiences of Students to be cared in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of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7(2), 349-359, doi: <http://www.riss.kr/link?id=A100292117>
- [19] Kim, J. Y., & Heo, N. R. (2017)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Nurs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 611-623, doi: <http://www.riss.kr/link?id=A102769958>
- [20] Yoon, S. H. (2005). Study on clinical nurse'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f using commcation skills by interpersonal caring techniqu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doi: <http://www.riss.kr/link?id=T9862774>
- [21] 김희영(2020). 사람돌봄이론을 적용 한국내 간호연구 분석. *기본간호학회지*, 27(2), 116-128. doi: <https://doi.org/10.7739/jkafn.2020.27.2.116>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간호학생의 기독교세계관,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스트레스, 대인돌봄행위 정도를 파악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기독교세계관,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스트레스, 대인돌봄행위 정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향후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임상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계기가 되는 유용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소요시간은 5-10분 정도로 예상되며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를 종료한 이후 바로 폐기할 예정입니다.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설문 조사에 거절하더라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솔직한 답변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은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연구자 : 전 열 어

연구자 연락처 : 010-2213-4702 연구자 메일 : yeoleo2011@bscu.ac.kr

<일반적 특성>

※ 다음 내용을 읽으신 후 해당란에 v 표시 해주세요.

1. 연령 : _____ 세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3. 귀하는 몇 학년입니까? _____ 학년
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이슬람교 ⑤ 기타 ⑥ 무교
5.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건강함 ② 건강함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나쁨
6. 귀하의 대인관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7. 귀하의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고교 성적을 고려해서 ② 부모님이나 주위의 권유 ③ 취업률이 높아서 및 해외 진출
④ 적성과 흥미 ⑤ 전문직이라서 ⑥ 기타
8.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형태는?
① 자가 ② 기숙사 ③ 하숙 ④ 자취-혼자 ⑤ 자취-형제, 자매와 같이
⑥ 자취-친구, 동료와 같이 ⑦ 자취-친척과 같이 ⑧ 기타(_____)
10. 귀하는 병원 임상실습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0-1. 만약 임상실습 경험을 했다면, 임상 실습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1. 귀하가 간호학과에서 경험하는 전공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2. 귀하는 졸업 후 첫 희망 진로가 무엇입니까?
① 병원취업 ② 진학 ③ 보건교사 ④ 산업간호사 ⑤ 간호직 공무원 ⑥ 기타

기독교세계관

※ 다음에 제시되는 문항들은 기독교세계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문항내용	전혀 아니 다.	아 니 다	잘 모 르 겠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홀로 계셨다.					
2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3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4	하나님의 창조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지금도 현세계를 유지하시며 계속적인 창조활동을 하신다.					
5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6	하나님께서는 흠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7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8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다.					
9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10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11	인간이 죽게 된 이유는 아담의 죄 때문이다.					
12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13	인간이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14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					
15	기독교와 세상의 도덕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16	도덕의 중심과 그 기준은 하나님이다.					
17	이 세상에는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 필요하다.					
18	이혼, 물질주의, 동성애 등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죄의 결과이다.					
19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					
2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					
21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다.					
22	예배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동행을 느낀다.					
23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그 소명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대학생활스트레스

※ 다음은 대학생활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하여 귀하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항	문항내용	전 혀 없음	가 끔 있음	자 주 있음	매 우 자 주 있음
1	취업을 위한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2	졸업 후 취직을 못할 것 같아 걱정했다.				
3	진로와 취직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4	사회적 편견(예: 성차, 지방대학 등)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5	이성 친구와의 사이가 매우 악화되었다.				
6	이성 친구가 나의 의견에 따라주지 않았다.				
7	이성 친구와 심하게 싸웠다.				
8	이성 친구와 헤어졌다.				
9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대학생활이 위축되었다.				
10	학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11	용돈이 부족해서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았다.				
12	경제생활이 어려워서 취미생활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				
13	부모와 의견충돌이 있어서 싸웠다.				
14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15	집안 식구가 나에게 불필요하게 간섭했다.				
16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				
17	친구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다.				
18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				
19	교수의 인격에 대해 실망했다.				
20	교수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다.				
21	교수의 불성실한 강의로 학습의욕이 저하되었다.				
22	나의 가치관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회의에 빠졌다.				
23	왜 사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방황했다.				
24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천하지 못했다.				
25	공부해야 할 과제의 분량이 너무 많았다.				
26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27	전공 공부가 너무 어려웠다.				
28	취업 및 진로에 필요한 적성을 알 수 없어서 고민했다.				
29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방황했다				
30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가족들의 기대만큼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31	사회적 불안정(예: 정치, 경제 등) 때문에 직장을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다.				
32	이성 친구와 말을 하지 않았다.				
33	이성 친구가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았다.				
34	집안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다.				
35	사 입고 싶은 옷을 살 돈이 없었다.				
36	경제적으로 친구들과 수준 맞추기가 힘들었다.				
37	가족들로부터 억울한 비난을 받았다.				
38	부모님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				
39	형제나 자매와 심하게 싸웠다.				
40	친구로부터 무례한 행동을 당했다.				

41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귄 수 없었다.				
42	교수가 나의 인격을 무시했다.				
43	교수의 강의를 산만해서 요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44	교수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지혜와 안목을 얻을 수 없었다.				
45	확고한 인생관이 없어서 방황했다.				
46	이상과 현실의 격차 때문에 갈등을 경험했다.				
47	공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았다.				
48	성적이 나쁘다.				
49	전공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				
50	중요한 시험을 잘 치지 못했다.				

대학생활적응

※ 다음은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하여 귀하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항	문항내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대 체 로 그 렇 지 않 다.	그 저 그 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현재의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2	나는 대학에 들어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3	나는 최근 들어 자주 우울해진다.					
4	나는 최근 들어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5	나는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에 만족하고 있다.					
6	나는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7	나는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못하다.					
8	나는 최근 들어 신경이 곤두서 있다.					
9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충분히 잘해 낼 능력이 없는 것 같다.					
10	나는 최근에 식욕이 좋다.					
11	나는 현재의 주거형태에서 잘 생활해 나가고 있다.					
12	나는 최근에 머리가 자주 아프다.					
13	나는 최근에 학습의욕이 없고, 공부를 하려해도 집중이 잘 안 된다.					
14	나는 과모임, 동아리 활동, 동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5	나는 최근에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					
16	나는 최근에 체중이 많이 변화되었다.					
17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18	나는 최근에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다.					
19	나는 요즘 건강상태가 좋은 것 같다.					
20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대학의 학과공부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21	나는 대학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휴학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22	나는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 다.					
23	나는 대학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					
24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25	나는 현재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많다.					

대인돌봄행위

※ 다음은 대인돌봄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하여 귀하가 주변 동료 및 친구들에게 제공하는 돌봄행위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 번	내용	아주 조금	조금	보통	많음	아주 많음
1	대상자가 묻는 말에 성의 있게 대답한다.					
2	대상자에게 시선을 맞추며 집중한다.					
3	대상자에게 반응을 하며 듣는다.					
4	대상자 말의 의미를 파악하며 듣는다.					
5	대상자에게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해준다.					
6	대상자의 아픔을 알아준다.					
7	대상자에게 지식, 정보를 제공한다.					
8	대상자의 요구에 지체하지 않고 응한다.					
9	대상자를 배려해 주고 함께 한다.					
10	대상자의 아픔을 이해한다.					
11	대상자에게 부드러운 표정과 태도로 말한다.					
12	대상자에게 필요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다.					
13	대상자를 믿어준다.					
14	대상자의 편에서 들어주고 받아준다.					
15	대상자를 비판하거나 야단치지 않는다.					
16	대상자의 뜻에 맞장구친다.					
17	대상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					
18	대상자에게 괜찮다, 잘했다, 그러했겠다고 말한다.					
19	대상자에게 기뻐해주고 마음 뿌듯해 한다.					
20	대상자를 세워주고 칭찬한다.					
21	대상자에게 희망, 생기,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22	대상자에게 앞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23	대상자에게 힘을 북돋아주거나 '화이팅 하세요' 라고 말한다.					
24	대상자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한다.					
25	대상자의 복을 빌어준다.					
26	대상자에게 관심을 갖고 기분상태를 살펴봐 준다.					
27	대상자를 찾아봐 준다(Visit).					
28	대상자에게 관계를 시도한다.					
29	대상자의 상태, 외모 변화를 알아차리고 반응해 준다.					
30	대상자에게 관심을 보이며 응시한다.					
31	대상자와 시간을 함께 보내준다.					
32	대상자가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어준다.					